

사사기 21. “도덕적 부패 1. “한 레위인의 비극” [19장 1절-30절]

1. 들어가기

19 장의 내용은 앞장의 미가의 우상 숭배나 단 지파의 불신앙의 사건과는 연대적으로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자는 앞장의 사건에 이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사 시대의 종교적 부패와 함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 장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두고 살던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은 다른 사람과 행음한 뒤,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선한 마음으로 그 첩을 데리러 유다 베들레헴 장인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딸을 데리러 와준 사위를 고맙게 생각한 장인은 3일간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레위인이 딸과 함께 돌아가려고 하자 장인과 딸은 레위인을 붙잡고 더 머물기를 간청해 이들을 더 머물게 했습니다. 5일째 늦은 오후 레위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말하고, 더 머물라는 장인의 간청을 거절하고 첩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새 저녁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위인의 종은 근처 여부스 성읍으로 들어가서 숙소를 정하자고 청했으나, 그는 여부스가 이방인의 성읍임을 지적하며,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까지 가서 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자신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노인이 레위인을 발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동네 불량배들에 의해 레위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첩은 밤새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다음날 새벽 목숨을 잃게 되었고, 분노한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 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며 자신이 당한 사건을 온 이스라엘에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충격에 빠지고 분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1절)

오늘 본문도 역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곧 아무런 다스림도 지도도 받지 않는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저자는 오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묵상합시다!

2. 한 레위인과 그의 첩 (1-9절)

1)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습니다.

■ 주목 - 18절 내용.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와 그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마도 이 레위인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직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

-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은 기생이나 첩 혹은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도록 금지 되어 있었습니다. (레 21:7)

2) 레위인은 행음한 뒤 친정 집으로 달아난 첩을 찾으러 유다 베들레헬으로 갔습니다. (2-3 절)

- 율법은 행음한 여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고(신 22:22), 만일 그녀를 불쌍히 여겨 죽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데려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 (신 24:4)

- 곧 저자는 다른 평민들보다 더욱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심각히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려 줌.
- 또 만약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일반 평민들은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를 암시!

■ 주목 - 3 절의 첩을 대하는 레위인의 태도

- ① 4 개월 뒤에 찾아감 - 왜 4 개월일까?
- ② “다정하게” 말함 - 원어는 “레다벨 알립바”란 말로, “그녀의 마음에 말하다”는 뜻 곧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녀를 용서하며 그 마음을 치료하며 말했다는 것!

3) 첩의 아버지는 사위의 태도에 감사하며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 3 일 동안 극진히 대접 - 2 틀을 더 머물도록 간청

■ 주목 -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아버지나 첩이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

- 곧 인간적으로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란 생각으로 즐기면서 넘어가려 했다고 볼 수 있음.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그저 덮어둔 것이지 해결된 것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

4) 4 일 밤을 머무른 레위인은 5 일째 저녁엔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려 했습니다.

➢ 생각하기 1. 왜 그는 3 일을 머무르는 것을 좋게 여기고 5 일째는 무조건 떠나려 했을까?

- 학자들- 레위인으로 주어진 자신의 종교적인 직무와 관련되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 ☆ 비록 그가 당시 시대 분위기를 따라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정도는 신앙과 율법을 생각하고 지키려는 자세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첩의 마음을 배려하는 태도)
 - ☆ 그러나 그의 신앙에 철저함은 없었다는 것이 문제!!
 - ☆ 결국 그는 장인의 인간적인 호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체하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됨..

- 우리도 대충 대충의 신앙생활이 아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또한 우선순위를 잘 챙기며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

- 또한 다른 사람의 상황과 일들을 함께 염려해 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

3. 첩과 함께 집으로 길을 떠나는 레위 사람 (10-21 절)

- 1) 장인의 간청을 뒤로한 채 5 일째 오후 늦게 출발한 레위인은 ‘여부스’ 성읍 근처에서 저녁을 맞게 되었습니다. (11 절)

■ 참고 : 여부스

- ① 유다 베들레헬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 - 도보로는 2 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
- ② 본문은 여부스를 예루살렘이라 칭함 -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반쪽만 정복했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 예루살렘의 반쪽은 아직도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

2) 종은 레위인에게 '여부스'에 숙소를 정하여 하루 밤을 쉬고 떠나자고 하였지만, 레위인은 이를 거절하고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쉬자고 하였습니다.

■ 그럼 거절한 이유?

■ '기브아'를 택한 이유?

- '여부스'에서 '실로'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던 '기브아'로 가는 길이기 때문! - '기브아'는 '여부스'에서 약 6km 로 도보로 1 시간 반 거리.

3) '기브아' 성읍에 레위인이 도착했을 때, 영접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 주목 - 15 절,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 ① 성읍 넓은 거리 - 마을 중심의 넓은 광장을 의미하는 곳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성읍 넓은 거리/광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② 모든 재판과 회의가 열리고, 중요한 가르침과 내용이 전달되던 곳!

■ 왜 레위인은 이 곳에서 앉아 있었을까?

- ① 성읍 넓은 거리/광장의 단상에는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인정받는 자들만 앉을 수 있음!
- ② 레위인은 이곳에 앉아 자신을 영접할 사람을 기다린 것! - 그의 사회적 위치를 짐작~
- ③ 율법= 경건한 사람은 이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

■ 그러나 자신이 믿고 찾아온 '기브아' 사람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

- 곧 그 곳은 불경건한 성읍임을 암시!

■ 그런데 한 노인이 이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림.

4.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 레위인의 첩이 처참히 능욕을 당함 (22-26 절)

1)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레위인이 노인의 집에 머무는 것을 알고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 주목 - 22 절,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 ① 강제적인 성폭행을 하겠다는 뜻! (예: 소돔과 고모라 사건)
- ② 율법 - 이런 범죄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레 20:13 절)
- ③ 이것은 당시 사사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2) 기브아의 노인은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넘겨 주며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하였고, 레위인은 결국 자기 첩을 그들에게 넘겨주면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생각하기 2. 기브아 노인이나 레위인이 딸과 첩을 넘겨주려 한 행동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 노인 -

■ 레위인 -

- 이런 사고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

- ①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의무감이 자신의 딸들, 또는 아내를 지켜야 할 의무감보다 컸다는 것! 곧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지키려 한 것!
- ② 문화적으로 당시 남성들이 딸이나 아내, 첩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

■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이었을까? (분명 위험은 피할 수 없었을 것!)

3) 결국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끔찍한 강간을 당한 뒤 처참히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기 3.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

- ① 그녀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
- ② 진리를 쫓지 않고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도구로 사용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롬 1:26-27 절

5. 레위인은 그의 첩이 죽은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하였습니다.(27-30 절)

1) 주목 - 첩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12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12 지파들에게 보냄

2) 그럼 왜 그는 이렇게 했을까?

- ① 이 사건에 대해 고발할 만한 공식적인 기구가 없었기 때문
- ② 저들이 저지른 죄를 이스라엘 전역에 강력하게 고발하겠다는 의도

3) 그러나 레위인은 자신이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당한 사건만 분노하며 저들의 죄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버린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음.

➤ 생각하기 4.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이나 결심한 것이 있다면?